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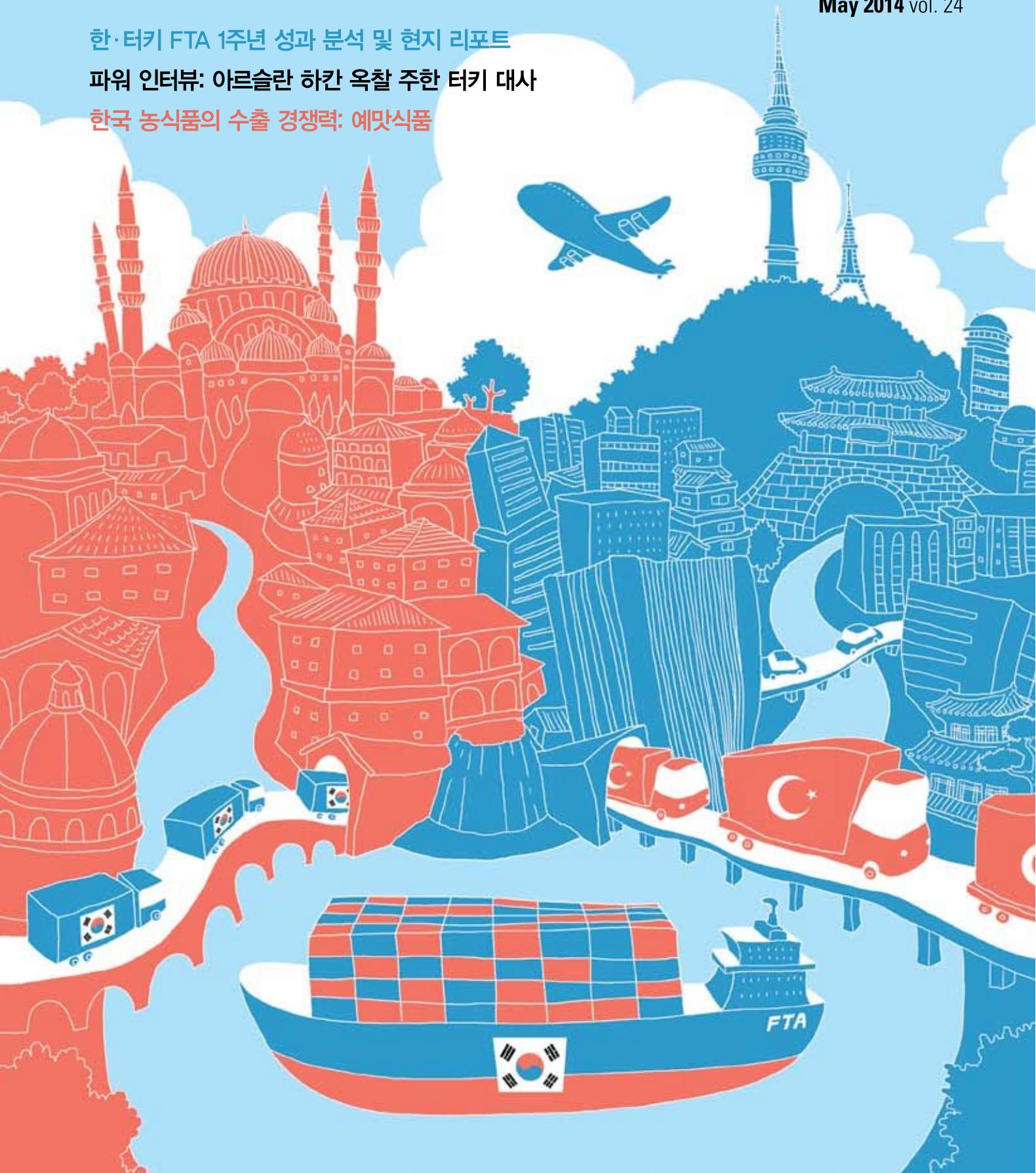
함께하는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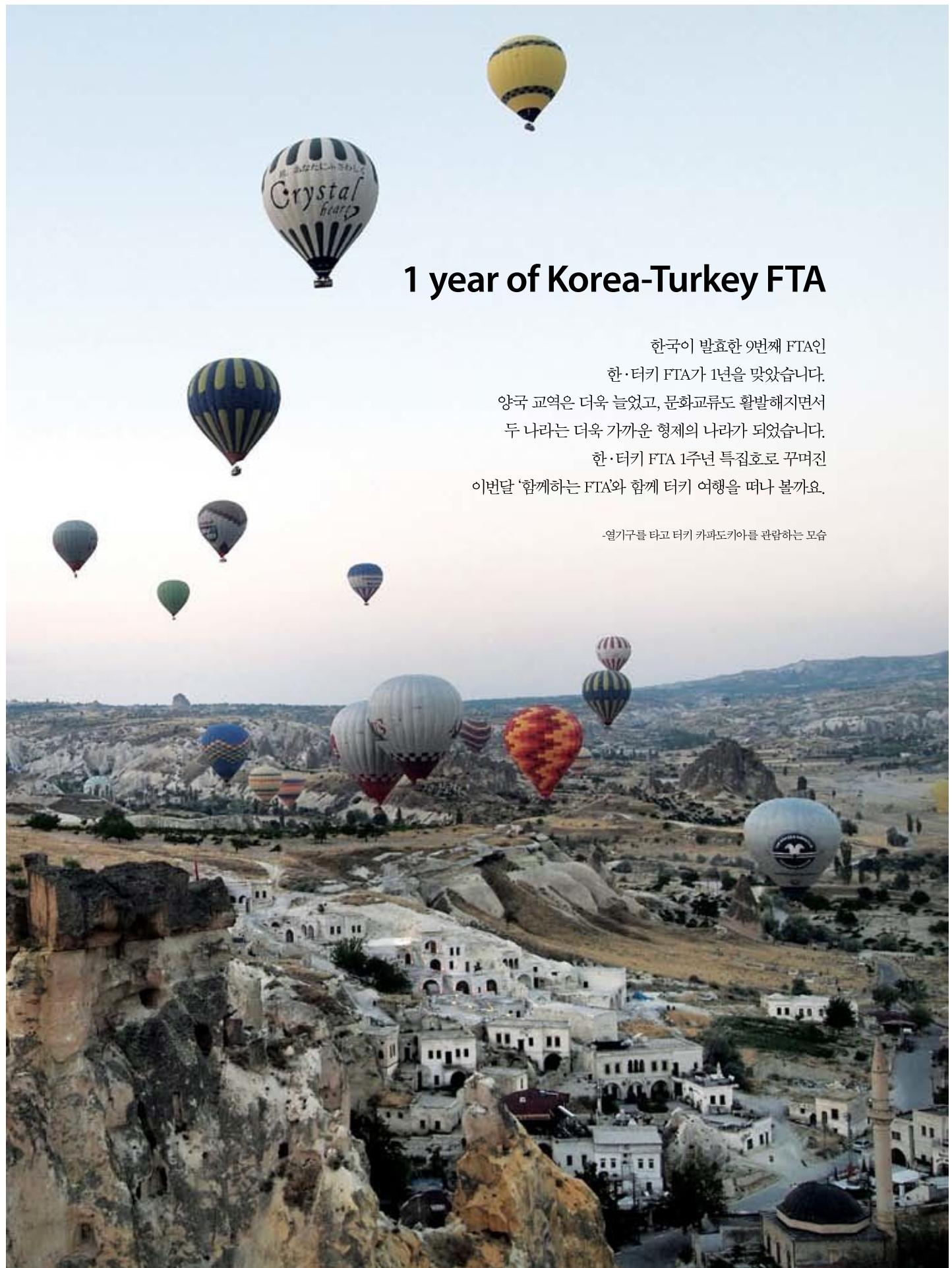
May 2014 vol. 24

한·터키 FTA 1주년 성과 분석 및 현지 리포트

파워 인터뷰: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예맛식품





1 year of Korea-Turkey FTA

한국이 발효한 9번째 FTA인

한·터키 FTA가 1년을 맞았습니다.

양국 교역은 더욱 늘었고, 문화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두 나라는 더욱 가까운 형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터키 FTA 1주년 특집호로 꾸며진
이번달 '함께하는 FTA와 함께 터키 여행을 떠나 볼까요.'

-열기구를 타고 터키 카파도키아를 관람하는 모습

정부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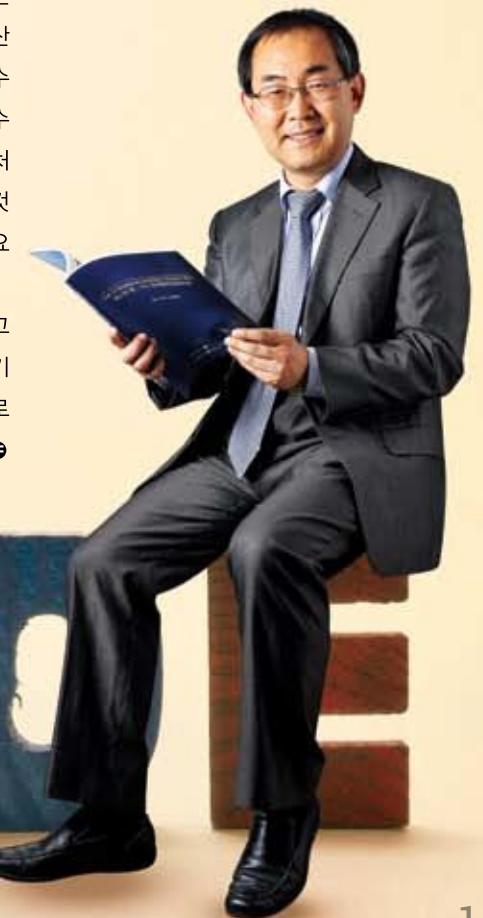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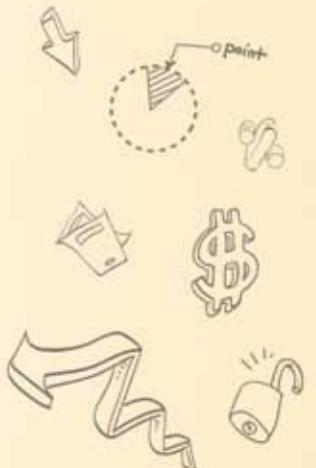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FTA,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쭈욱~”

정부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57)은 학구열이 불타는 사람이다. 2009년 스웨덴계 기업 '글로벌 리펀드'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 베이징 어학연수, 한국FTA산업협회의 FTA컨설턴트 양성 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FTA 통상정책 및 비즈니스 컨설팅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FTA'가 들어간 과정만도 세 번째다. 왜 그는 FTA에 매달리는 걸까.

“15년 동안 삼성물산에서 무역업무, 10년 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대표를 맡으며 글로벌 시장을 겪었어요. 그간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눈에 띈 것이 FTA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 은퇴한 베테랑 무역전사들을 FTA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 위원은 1기로 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나 FTA가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이 과정만 마치면 FTA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들을수록 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석사과정까지 오게 됐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도 거듭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수도권 클러스터 코디네이터'라는 타이틀을 맡아, 지난해 6월부터 구로·가산·반월·시화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의 수출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험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지금까지 약 50여 곳의업체들을 방문해 진단 및 처방을 내렸다. “현업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막상 남에게 조언을 하려니 정리된 체계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위원이 일했던 스웨덴계 회사는 국내 외국인관광객들의 세금환급을 대행해주는 회사로 '고객의 자산이 되자(Asset to Retailer)'라는 슬로건을 표방했다. 그는 이를 본 따 스스로에게 '중소기업의 자산이 되자'고 미션을 부여했다. 겉모습만 화려한 컨설팅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실제로 기업의 자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전사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본다.❷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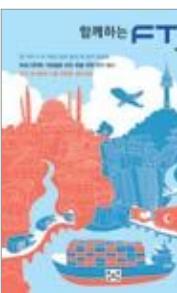
May 2014 vol. 24



지난해 8월 31일 열린 터키에서 열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모습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5월 13일(통권 24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TORY

지난해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하늘·땅·바다를 통해 터키와 한국의
상품들이 활발히 이동하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FTA는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없애 궁극적으로는 협정 체결국끼리 하나의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한국과 터키가 FTA를 통해 하나의
시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People

01 정부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

Issue Focus

04 FTA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한다

COVER STORY

06 한·터키 FTA 1주년 성과 분석

08

터키에서 본
한·터키 FTA 1주년
김재우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차장

FTA Cartoon

11 '형제의 나라'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안중만

22 세계 건설 시장에 도전하다:
고속도로

Power Interview

12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

FTA Vista

14 한국과 터키,
사진으로 만나다

Leader's View

16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TPP의 협상과제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FTA Lounge

18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
②KOTRA 수출첫걸음

FTA Cartoon

20 김 수출 전문회사
예맛식품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⑤애완용품
이민선 관세사

24

막걸리:
몸에 좋은 한국 대표 술
양충모 객원기자

FTA Study

26 자유무역의 역사:
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38

독자가 만난 사람:
정유정 작가

40

청송전통옹기
이무남 옹기장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⑤정보제공요청서 대응Ⅲ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Culture Prism

36 빨간 우체통의 그리움
김경진 작가·인문학자

38

독자가 만난 사람:
정유정 작가

40

청송전통옹기
이무남 옹기장

FTA News

42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의결 등

INDEX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FTA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한다

FTA 관세특혜 열매를 더 많은 기업에 제공할 것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자유무역의 혜택이 거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결 상대국끼리만 배타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이 부여되다 보니,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보니 원산지 검증을 두고 양국 세관이 의견을 보여 기업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근 열린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에서는 '손톱 밑 가시' 같았던 애로사항을 없애 FTA의 열매를 더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1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가 개최됐다.

지난 4월 11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 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 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1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 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간 품목분류(HS 코드)가 달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 검증 시 품목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으로 간주되어 벌칙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지침을 전국 160여 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 'FTA 이행 지침 20선'을 전자책(e-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HS 번호 상이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홈페이지(관세청 FTA 포털 fta.customs.go.kr)에 제공하는 한편, HS 분류사례 조회 시스템(관세청 HS세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HS 관련 분쟁 시 관세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 번호(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 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 시 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수입국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HS 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의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 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증 여부가 부합되는 경우 수입국의 HS 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HS 번호 상이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에 대한 홍보

-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 번호와 관계없이 수출신고상의 HS 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다를 수 있으나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요청·협의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다른 FTA와 달리 특혜관세 혜택 적용(6,000유로 초과 수출입 시)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수입자가 EU 인증수출자 번호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했다. 이 때문에 EU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관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EU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인증수출자 번호는 관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벨기에(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1~8)/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Denmark)	DK/51/04/237/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2자기 형식 모두 유료
독일(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자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	FR/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탈리아(Italy)	IT/001/RM1/06 IT/001/RM2/06 IT/001/BO/11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 +digit number(1) or (2)/인증연도(2)	R: Rome MI: Milano NA: Napoli 그 외 지역
사이프러스(C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리트비아(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	LT/VMO/011	국가(2)/세관부서명(3)/대문자)/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 또는 (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500: 대국 501~999: single
헝가리(Hungary)	HU/23450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미국연도)/인증번호(9)	N: National E: EU Community
밀타(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갈(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Porto/ L: Lisboa
루마니아(Romania)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3)/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3) *국가(2)/인증번호(3)/aland/지역은자리	
스웨덴(Sweden)	SE/SHF/123456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Republic of San Marino)	SM/SM001/00/0000	국가(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1주년 성과 분석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30.8% 증가… 1년차 수출활용률 한·미 FTA 때보다 높아

최근 터키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터키 FTA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은 30.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 증가율(1.7%)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한·터키 FTA 수출활용률은 71.4%를 기록해 한·미 FTA 1년차 수출활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33.6% 증가(45억4,000만→60억6,000만 달러)한 반면, 수입은 11.1% 증가(6억3,000만→7억 달러)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7.2% 확대(39억 1,000만→53억6,000만 달러)됐다. 수출입을 합한 전체 교역량은 30.8% 증가(51억7,000만→67억6,000만 달러)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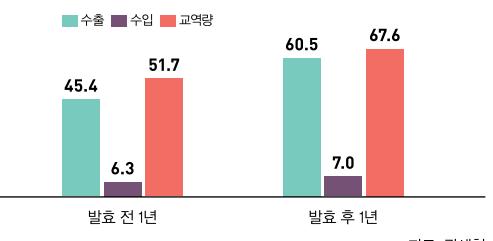
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이 비혜택 품목 앞질러

특히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 증가율은 35%(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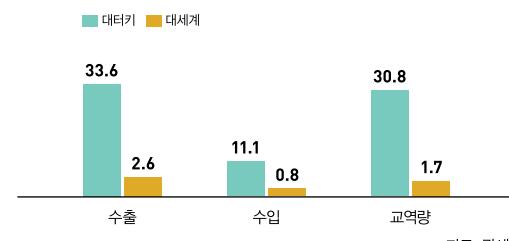
9,000만→41억7,000만 달러)로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 증가율 30.4%(14억5,000만→18억9,000만 달러)를 상회하여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 FTA 혜택 품목군의 증가율은 214.6%(6,000만→2억 달러)였으나, FTA 혜택 품목군의 수입은 12.3% 감소(5억7,000만→5억 달러)했다. 이는 대터키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의 수입액이 22.7%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FTA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화학 원료, 영상기기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의 수출은 감소했다. 관세가 즉시철폐된 합성수지(관세 6.5→0%)는 에틸렌, 폴

FTA 발효 전후 대터키 수출입 (단위: 억 달러)



대터키 vs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 비교(단위: %)



리스틸렌 등의 수출이 늘어나 76.9% 증가(4억2900만→8억6500만 달러)했고, 철강판의 경우 관세가 즉시철폐된 스테인리스강(관세 2→0%)의 수출이 늘면서(1억1,200만→2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또한 석유화학 원료(관세 6.5→0%)는 섬유 기초 원료 및 PET병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텔레프탈산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0.2배 증가(500만→1억4,300만 달러)했으며, 영상기기는 TV(관세 14→12.25%) 및 TV부분품(관세 5%→0%)의 수출 증가(400만→1억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배 증가했다. 또한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산업보호관세가 철폐(20~30→0%)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2억4,000만→2억8,300만 달러)했다. 산업보호관세(ACD: Additional Customs Duty)란 터키측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 및 의류제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자동차는 관세인하(관세 10%→1년차 8.75%)에

대터키 FTA 혜택·비혜택 품목군 수출입 현황

구분	발효 전 1년 (억 달러)	발효 1년차 (억 달러)	증감율 (%)
수출	혜택 품목	30.9	41.7
	비혜택 품목	14.5	18.9
	합계	45.4	60.6
수입	혜택 품목	5.7	5.0
	비혜택 품목	0.6	2.0
	합계	6.3	7.0

*수출의 FTA 혜택·비혜택 품목 구분은 상대국과 HS 연계에 근거해 작성한 추정치임.

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터키 현지공장 증설(10만→20만 대 규모)에 따른 현지생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3억6,000만→3억3,700만 달러)해 2012년 대터키 수출 1위 품목에서 5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부품 수출은 12.7% 증가(3억3,100만→3억7,300만 달러)했다.

한편 FTA와 관세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던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디바이스의 수출 증가(1억 5,500만→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하며 대터키 2위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6.3%)했으나, 발효 2년 전보다 대폭 감소(-5.2%)해 2012년 대터키 2위 수출 품목에서 9위로 밀려났다.

FTA 수출활용률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비슷해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5년 내 철폐'되는 품목 위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아연 광(무관세)이 151%, 변압기(관세 8→0%) 등 정지 기기는 132.7%, 벨브(관세 8→6%)·베어링(관세 8~13→8~10.6%) 등의 기계요소는 83.9%, 의류(관세 8~13→0%)는 7.3%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22.7%, 기호식품은 15.7%, 정밀화학원료는 9.5% 감소했다.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71.4%로, 한·미 FTA 1년차 수출활용률(70.2%)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대기업 73.3%, 중소·중견기업 69.2%로 활용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❶



터키에서 본 한·터키 FTA 1주년

한국 기업 진출 급물살…터키 현지 반응 ‘굿’

2014년 5월 1일이면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순간이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 기업들이 수시로 '현재 해상에 배가 있어 입항을 언제쯤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던 적이 기억난다.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정답을 말하자면 '5월 1일 자정부로 통관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한 상품'에 한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터키공장에는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 계열사 외에도 호원, 동희, 화승 등 8개 협력사가 진출해 생산 확대와 신규모델 투입이 가능해졌다.

별써 1년이 지난 시점에 '터키가 한국과의 FTA를 왜 그리 서둘렀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원론적으로 FTA의 기본 철학인 '체결국 간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베타적인 이익을 공유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1996년에 EU와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넣은 문구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유럽공동체(EC)였던 유럽연합은 유일한 관세동맹국인 터키에게 'EC가 FTA를 체결한 국가 및 경제권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터키도 FTA를 체결하여 유럽의 기준에 맞춘다'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터키는 별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지금도 터키는 이를 자국에 불리한 의

무(Obligation)조항이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측에서는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권고(Recommendation)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터키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터키 경제부 관계자의 웃음기 머금은 하소연이다.

터키, 한국을 파트너로 손을 잡다

터키의 경제수도인 이스탄불은 절반은 유럽 대륙에, 나머지는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유일한 도시다. 그 사이를 보스포러스해협이 가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한 인구는 1,350만 명이나 관광객들과 유동

인구를 합치면 1,700만 명에 가까운 거대급 도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는 겨우 두 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30개가 넘는 다리를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점을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1973년에 영국과 독일이 제1대교를 건설하였고, 1988년에 일본과 이탈리아가 제2대교를 지었다. 이제 제3대교가 한국의 건설사인 SK건설, 현대건설에 의해 한창 지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현수교와 사장교 공법을 가미한 복합방식, 세계 최대 주탑 높이로 건설되는 이 다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기술강국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5.4km의 복층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SK건설과 현지 업체가 협작하여 터널을 뚫기 시작하였다. 양 대륙의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실크로드가 한국기업의 손에 의해 건설되는 셈이다.

터키의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들은 한국인에 대해 '도전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업무능력을 손꼽았다. 일본인은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고, 터키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독일인은 엄격한 매뉴얼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다고 한다. 물론 중국은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터키 입장에서는 형제의 나라 기업들의 성향이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FTA,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

상품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혜택은 단연



1



2

코 수출상품의 관세 인하 효과다. 발효 즉시 철폐되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는 품목도 많고, 윤해부터 관세인하 2년차인 상품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FTA는 수입당국의 관세 수입원을 줄여들게 만든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비록 양국간 협정에 의해 이를 시행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터키에서는 잊을 만하면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기 십상이다. 수 년 전에 발생한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 노동허가 관련 벌금 등 만기 없는 고지서다. 언어장벽이나 행정 처리를 몰라서 발생한 것들이 많은데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전산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귀신같이 찾아내서 오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FTA는 기존의 국도를 달리던 차를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셈인데 과속을 하거나,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은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원산지 증명 서류나 터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양국간 협정에 명시된 일정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에 형제간 우애는 없어

터키 관광을 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터키인의 친절함에 반한다. 길을 물었을 때, 아예 자기가 데려다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터키에 정착한 우리 교민들이나 몇 년간 거주한

1 터키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가르는 보스포러스해협의 제3대교가 한국의 SK건설, 현대건설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현수교와 사장교 공법을 가미한 복합방식, 세계 최대 주탑 높이로 건설되는 이 다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2 SK건설이 수행 중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 이스탄불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 터널 굴착 장비.

‘형제의 나라’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안종만

주재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바로 ‘터키에서는 단골에게 바가지를 썬운다는 점이다. 중국은 단골이 될수록 인간관계(판시)로 인해 친분이 오래 지속되지만, 터키는 첫 거래 상대에게 오히려 후한 가격을 매겨준다. 이를 토대로 계속 거래를 하다보면 점차 가격인하 압박을 해온다. 서로 단골이 되면 약간의 이윤을 덜 남기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속고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역사적인 습성에 발견할 수 있다. 돌궐족과 흥노족 등이 결합된 터키인들은 과거 유목민족이었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거래를 했

을 것이다. 광활한 땅을 거쳐 가며 첫 거래는 양보도 하고 늘 우호적으로 끝났다. 괜히 시비가 불어 다시 조우했을 때 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신변의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목민에게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단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이 지금의 비즈니스에도 적용된다. 물론 일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이들은 제품의 경쟁력(가격, 품질, A/S 등)이 갖춰진 상태라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첫 거래 이후에 경쟁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바이어들을 찾는 수고를 아끼면 안 된다.❶

현지에서 본 터키 외환위기설 튼튼한 실물경제가 금융 버티목 역할

연초부터 터키의 외환위기설이 나돌았다. 작년 초에 비해 달러 대비 약 20% 이상 평가 절하된 터키 리라화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중 하나인 1일물(Overnight) 은행간 대출금리를 무려 7.75%에서 12%까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잠잠해졌다.¹⁾ 여기에 매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 규모와 반정부 시위 등이 도화선이 되었다.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서도 앞 다투어 터키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금융 분야만을 고려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실물(산업) 분야의 터키는 상대적으로 그 체질이 강한 편이다. 우선 터키의 제조업은 전기전자·자동차·기계·섬유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



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공작기계(Mother Machine)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선진국 제품들이다. 3만 톤급 이하의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다. 미국에서 건조중인 F-35 미라형 전투기 개발에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미사일, 무인기, 탱크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산업체들의 능력도 주요 군사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다. 터키가 단기 외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단기외채 중 정부부문은 15%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터키의 시중은행들의 단기 차용자금이다. 이미

1) 터키는 하나의 기준금리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혼용한다.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준금리인 1주일 환매조건부 금리는 2014년 1월 29일 4.5%에서 8%로 인상하였다.

5월 1일 한·터키 FTA가 발효 1년을 맞았습니다.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

한·터키 FTA 양국에 긍정적 성과... 서비스·투자협정도 조속한 타결 기대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는 올해 1월 부임해 4년 간 한국에서 터키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24세 때 터키의 외무고시에 합격한 아래 유럽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그는 이번 한국행을 계기로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 외교관을 맡게 됐다. '형제의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서인지, 한국 정부 빌간률인 '함께하는 FTA'의 인터뷰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터키측에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맺은 첫 FTA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서쪽과 동쪽의 양 끝에서 떠오르는 두 별이라 할 수 있는 터키와 한국끼리의 교역 증대가 목적이었습니다. FTA 발효 이후 양국 합계 국민소득 2조 달러, 교역량 1.5조 달러, 인구 1.2억 명의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FTA를 통해 보완적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양국 국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상업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봅니다. 지난 1년 간 양국의 교역은 30.8% 늘었고,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33.6%, 대터키 수입은 11.1% 늘었습니다. (한국의)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35%, 비혜택 품목은 3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4월은 양국의 FTA가 발효되지 않은 시점으로 FTA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FTA는 그 자체로 포괄적인 것입니다. 포괄적 합의에 의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지난해 상품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서비스와 투자협상이 올해 안에 끝나 조만간 발효되기를 바랍니다. 상품 협정의 경우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서 무역장벽이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민감품목이 존재합니다. 향후 몇 년 내로 이 품목들도 무역장벽이 해소돼 양국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상품이 양국 FTA 이후 터키에서 판매가 늘었습니까? 또 한국에서 판매가 늘어난 터키의 상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의 대터키 수출 중 투자 관련 상품과 원자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철도 원자재, 화학(생화학·비료·제약), 플라스틱 제품, 섬유, 금속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 기반 시설 등에서 한국의 투자가 늘었는데, 그 관련 상품들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잇는 지하 터널을 뚫는 것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자 한국 식음료의 수출(한국→터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인들이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도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소주가 처음으로 터키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터키 식품도 한국으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FTA 발효 이후 터키산 밀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헤이즐넛, 어류, 과자류도 늘었습니다. 더불어 제약, 기계류, 메탈 스크랩의 수출(터키→한국)도 늘었습니다.

터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국 FTA가 어떤 장



점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터키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66억 달러입니다. 터키의 대한국 수출은 한국의 대터키 수출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FTA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터키 FTA는 터키 기업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터키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이 터키 제품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

다. 또한 한국의 대터키 투자 증가는 고용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빌간, 코카서스, 중동, 아프리카를 아우르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0이 살고 있는 56개국과 비행기로 4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의 지정학적 장점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 FTA는 교역 증가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스슬란 하칸 옥찰(Arslan Hakan Okçal) 대사

1954년 이스탄불 출생
1977년 앙카라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전공)
1978년 외무고시 합격. 터키 외교부 발령.
1980~1981년 터키 공군 장교 복무.
1981~2004년 터키 외교부 및 유럽 지역 대사관 근무.
2004~2008년 주 나이지리아 터키 대사.
2008~2010년 주 마케도니아 터키 대사.
2010~2013년 터키 외교부 발칸 및 중부유럽 담당 국장.
2014년 주한 터키 대사(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터키와 한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굳건해진 '피를 나눈 형제(blood brotherhood)'의 나라로 매우 가까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에 더해 FTA는 비즈니스맨들의 교류 증가와 함께 양국의 강점 및 가능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이정표이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경제적 기둥이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교류의 결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터키를 방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터키는 이미 지난해 4,000만 명의 여행자가 다녀갔는데, 한국 여행자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터키를 방문한 한국인은 18만7,000명입니다만 근래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터키 또한 한국처럼 FTA에 적극적인데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까? 또 FTA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해외 교역 증가의 입장에서 터키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만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18개국(서명 및 발효)과 FTA를 맺었고, EFTA를 포함한 13개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출자들이 해외에서 우월 또는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 수출자들과 경쟁하고 또한 상호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FTA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FTA 파트너 국가들과의 지금까지의 성과들은 관세 인하, 원산지 기준, 투자, 지적재산권에서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교역, 상대국의 복지제도 등을 통해 터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FTA는 단순히 경제·상업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FTA를 통해 상대국의 경제·상업적 잠재력을 더 잘 알 수 있고, 기업 실무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양국의 우호적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❶

BLOOMING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활발해진 문화교류
한국과 터키, 사진으로 만나다

SILK ROAD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3.26~4.1)을 시작으로, 대구예술발전소(4.4~4.17),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4.22~5.7)에서 '한국·터키 대표작가 사진전'이 열렸다.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시장이 됨과 동시에,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터키를 대표하는 5명의 사진가와 한국 대표 사진가 8명의 사진을 통해 양국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사진전은 5월 15일 앙카라에서 '온 코리아(On Korea)–실크로드의 저편' 전시를 시작으로 터키 순회 전시에 들어간다.



1



2



3

- 1 A. Halim Kulaksiz, Mosques and the Bridge, 2007
- 2 Ercan Arslan, Social Cases, 2005
- 3 박종우, DMZ, 2010
- 4 Ara Güler, Fishermen returning to port Kumkapı, 1950
- 5 Ara Güler, Porters waiting for work, 1954
- 6 육명심, 백민, 1983
- 7 A. Halim Kulaksiz, Old Town, 2000
- 8 서현강, 경복궁 근정전 궁중 의례, 2011
- 9 Ercan Arslan, Social Cases, 2009



4

5

6



7



8

9



글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TPP의 협상과제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상의 큰 틀 세우는 것이 먼저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FTA 후발참여국에서 동아시아 FTA 하브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5대 교역대상 중 미국, EU 및 ASEAN과의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대표적인 신흥개도국인 인도, 유럽의 EFTA, 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등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와 이웃한 국가이면서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고 따라서 중국, 일본과의 FTA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5대 교역국 중 중국, 일본과의 FTA가 남아

중국, 일본과의 FTA는 이전에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과 체결한 FTA와는 또 다른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장을 대한 우려와 동시에 세계 최대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보라는 기대를, 일본의 경우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동시에 기존 FTA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웠던 농수산물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양자(한·중 FTA), 삼자(한·중·일 FTA) 및 다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는 2013년 9월 1단계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한 한·중·일 FTA는 2013년 협상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ASEAN과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가 '관심표명'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참여선언이 예상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일부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역내국 간의 FTA 혹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빠르게 진전된 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선진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를 '통상'에서 찾기 시작했고,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연되면서 미국과 EU, 일본과 EU 등 주요 경제국간의 '메가 FTA'가 추진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중·일 FTA나 RCEP 등 역내 FTA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경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고자 한·중 FTA 및 RCEP 추진에 동의했고 일본도 경쟁국인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국과의 FTA 추진을 통괄하는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FTA에서 이러한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상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중국, 일본 등과 FTA가 중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큰 틀을 그리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에 나선 각국 수석대표.

한·미 FTA나 한·EU FTA를 체결하고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기존에 다소 부정적 입장이던 한·중·일 FTA 협상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ASEAN은 한·중·일 FTA나 TPP 등으로 인해 역내에서 ASEAN 중심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ASEAN이 주도하는 RCEP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역내 FTA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견제 혹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ASEAN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 등으로 축발된 면이 있으나, 각각의 협상은 상호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RCEP의 빠른 전개는 미국의 TPP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 TPP 타결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한·중·일 FTA의 진전은 RCEP 내에서 한·중·일 3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수록 RCEP 협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큰 틀 먼저 세우고 각각의 협상에 나서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 FTA가 중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각각의 FTA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한·중, 한·중·일 FTA, RCEP, TPP 등에서 참여국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이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과 역내 통상질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다양한 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기존 FTA 그리고 경쟁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경제활동 주체의 의견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❶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②KOTRA 수출첫걸음

전문위원 밀착 가이드와 해외무역관 네트워크가 장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첫걸음' 사업의 장점은 해외무역관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첫 사업 이후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수출첫걸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지난 4월 15일 구로구 소재 수출산업단지에서 개최된 '2014년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발대식'에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200여 개사가 참석해 신규 수출창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2020년 세계 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8만7,000여 개에 불과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를 10만 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 수출 5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대상
이 날 발대식을 한 'KOTRA 수출첫걸음 지원 사업'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생생한 바

이어 정보 및 수출 인사이어리를 비롯해, 초기 수출 실무 컨설팅에서 수출 계약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일대 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KOTRA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바찾사(바이어를 찾는 사람들)'가 시초로 2012년 '수출첫걸음' 사업으로 전환해 20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13년 '수출첫걸음 지원팀'을 설치해 정식 신규사업화했다. 참가자격은 전년도 수출액 5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는 총 581개사(순수내수기업 266개사, 수출초보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수출이 없던 내수기업 중 약 27%인

71개사가 신규 수출을 달성했고, 수출초보기업 중 275개사의 수출성과(계약성공)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의 수출액은 2012년 1억5,000만 달러(USD)에서 2013년 2억1,000만 달러로 4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상·하반기 분할 선정을 통해 총 7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4월 현재 454개 업체(순수내수기업 211개사, 수출초보기업 24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6월부터 추가 모집을 통해 하반기에 246개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수출첫걸음 프로그램은 KOTRA가 보유한 30인의 전문위원들이 일대 일로 직접 기업을 지원해 수출이 어려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민간기업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한 베테랑으로 지역 및 품목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으며 외국어에 능통하다. 지난해 서울 본사에서 22명의 위원들이 활동했고, 올해는 지방기업들과의 접촉기회를 늘리기 위해 본사 21명, 지역 9명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수출첫걸음' 참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KOTRA 해외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KOTRA는 참여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경험이 적은 것을 감안해 신흥지역 5개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미얀마)에는 전담 마케터를 두고 바이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과 오피가 진행 중인 곳 200개사를 대상으로 3~4회 개최할 예정이다.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 최광수 팀장은 "수출첫걸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 지원업체를 1,500개로 늘려 5년간 총 5,000개사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❶

KOTRA 수출첫걸음 프로그램은 직접 연도 수출 50만 달러 이하 기업면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5일 구로구 수출산업단지에서 열린 '2014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발대식' 모습.



수출첫걸음 세부 지원 내용

STEP 1 수출첫걸음 기업 육성

01 고객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수출상담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자료(카탈로그·홈페이지 등) 제작 컨설팅
- 시장동향 정보 제공(유통구조·고객특성)을 통한 타깃시장 선정
- 무역실무 교육, 비즈니스 상담 체험, 테스트 마케팅 실시

02 수시모(수출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모임) 운영

- 수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초 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

03 지시 인사이어리 발굴을 통한 수출 성과 달성

- 지시 인사이어리 집중 발굴
- 인사이어리 발굴 이후 철저한 팔로우 업을 통한 성과 추진

04 멘티기업 대상 수출첫걸음 상담회 개최

- 수출초보기업의 신규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기회 제공

05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관련지원서비스안내

- 무역보험공사, 외환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STEP 2 수출첫걸음기업 지방 확산 및 수출 다변화 추진

01 권역별 지원사업단을 통한 지원

- 지역 특색에 맞는 향토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지역별 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전문교육 실시(브랜드네이밍·스토리텔링·세일즈프로모션·품질인증 등)
-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개별 특구 유망품목 지원육성 실시

02 수출역량 단계별 및 충형 지원

- 수출초보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 단계별 후속 지원
- 해외 유망전시회 홍보관 참가, 시장조사단 파견 지원 등

02 유관기관 협력, 종합적으로 지원

- 공공기관: 코트라/중진공/신보/GSBC/SBA/산단공
- 협회·조합: 이노비즈협회/벤처기업협회/여성벤처협회
- 금융기관: 외환은행/기업은행
- 기타: Kompass Korea/EC 21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
전화 02-3460-7565, 7563 이메일 exportgateway@kotra.or.kr



김 수출 전문회사 예맛식품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로 코스트코에 낙점... 8개국 630개 매장에 PB로 수출

김치, 떡볶이, 비빔밥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식품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김이 될 듯하다. 소금·기름을 발라 굽는 조미김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생산한다. 이 김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경기도 이천시에 자리 잡은 예맛식품이 홀로 이뤄낸 성과다.

2012년 초여름, 미국 코스트코(Costco) 본사의 PB(Private Brand)팀장과 코스트코 아시아 총괄책임자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예맛식품 본사를 방문했다. 김 전문 생산업체 예맛식품이 코스트코 PB제품 공급업체로 선정 되기 위한 실사가 목적이었다. 한국에도 10개 매장을 가진 코스트코는 미국 449개점을 포함, 캐나다·일본·대만·호주·멕시코·영국 등에 총 630개 매장을 갖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의 PB제품은 월마트, 테스코의 PB제품과는 의미가 다르다.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을 다 갖추는 월마트의

상품군은 8만 종에 이르지만, 코스트코의 상품군은 약 4,000개에 불과하다. 한 카테고리에서 회원들의 반응이 좋은 양질의 제품 몇 종만을 가져다 놓기 때문에 PB제품은 코스트코를 대표하는 제품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경쟁 코스트코 PB 브랜드 따내
예맛식품은 이미 그해 2월 자체브랜드(NB: National Brand)로 텍사스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에 납품을 시작했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코스트코 본사에서 '대체 김이 원가'라며 반응을 보였다. 그 전부터 일본 코스트

코에서 예맛식품의 김은 전체 식품군에서 판매량 4, 5위(2종류)를 했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김을 찾기 시작하자 본사에서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대기업 제품도 후보로 올라 있었던 것이다. 예맛식품은 실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공장·사무실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물론, 지은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옥 외벽까지 말끔히 닦아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미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불러왔다. 김 생산지인 전남 신안을



권동혁 예맛식품 대표는 "김 가공을 쉽게 생각하는데, 세계인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유통업체에 감동을 줘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수출 비결을 전했다.



1 예맛식품은 2012년 코스트코 PB 선정 이후 전남 신안에 미주 수출 전용 공장을 완공해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다. 2 선진국의 까다로운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도체 공장 수준'의 클린룸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방문할 때는 바람막이 점퍼를 준비하는 등 의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는 경쟁사였던 대기업은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사장은 커녕 공장장도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다양한 식품군을 거느린 대기업에서 김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 품목이었지만, 김만 만드는 예맛식품에게는 회사의 모든 것을 결만한 일이었다. 당연히 코스트코의 선택은 예맛식품이었다.

그해 10월부터 예맛식품의 제품은 코스트코의 PB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너처(Kirkland Signature: 코스트코 본사가 위치한 커크랜드시의 이름을 본떠)로 코스트코 본사에 공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코스트코가 진출한 8개국(한국 포함)으로 수출국이 늘었다. 아시아를 통틀어 커클랜드 시그너처 브랜드를 단 식품업체는 지금도 예맛식품이 유일하다(일본산 녹차가 있으므로 음료 제외 시).

진국 소비자들에 눈높이를 맞췄다. 권 대표는 "브랜드도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선진국 시장을 뚫으려면 눈으로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한 제품개발도 한 몫 했다. 한국에선 주로 반찬으로 먹는 김이지만, 미국에서는 술안주·간식처럼 스낵으로 먹기 때문에 소금·기름량을 줄이고, 소금도 정제소금에서 천일염으로 바꾸는 등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수출이 늘어나면서 2013년 3월 전남 신안에 미주(미국·캐나다·멕시코·영국) 수출전용공장인 3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갔다. 3공장(1만m²)의 규모는 이천의 1, 2공장(각 3,300m², 2,600m²)을 합친 것의 2배가 조금 못 된다. 지난해 수출액은 매출 510억 원의 절반을 넘는 330억 원으로, 이 중 미국수출이 220억 원이다. 2012년 2월 미국으로의 첫 수출 이래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12년 2월 미국 수출이 이뤄진 데는 그 해 3월 발효된 한·미 FTA의 힘이 컸다고 이 회사 해외영업팀 김기영 차장은 말한다. "김 수출관세 6%가 한·미 FTA로 0%가 되면서 이에 맞춰 미국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기가 잘 맞았습니다." 한·미 FTA가 수출의 물꼬를 터주고 예맛식품의 노력으로 그 해 10월 코스트코 PB제품으로 선정된 것이다. FTA가 어시스터, 수출업체가 골을 성공시킨 셈이다.❶

똑심으로 세계 건설 시장에 도전하다 고속도로



한국 최초의 건설
해외 수출은 1965년의
태국 파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였다.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 역사는 한국의 해외 건설의 역사다. 1965년 태국 파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을 이뤄낸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내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게 됐다. 그 성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떠오른다. '개척'과 '도전'이 그것이다.

4.19 민주화 운동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무렵, 현대건설은 낙동강 고령교 복구 공사로 입은 타격으로 회사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위기를 겨우 헤쳐 나왔을 때였다. 고령교는 대구와 거창을 잇는 교량이다. 전란 때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하는 공사였는데, 1953년까지의 정부 빌주 공사로는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 사업에서 6,500여 만 환의 적자를 봤다. 계절마다 변동이 심한 낙동강 수심에 경험 없이 덤벼든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계약에 반영 시키지 않아 착공 당시보다 120배 이상 뛰어 오른 물가에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현대건설이 이 공사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떨쳐내는 데에는 무려 20년이 걸렸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수주가 최초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 시공은 국내 수주밖에 없었다. 큰 공사라고 해봐야 정부 빌주인데, 이런 사업을 따내면 정경 유착이라는 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국내 업체들의 건설 능력도 부족해 발전소나 비료공장, 산업플랜트 등은 외국 기업들의 몫이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이 해외에 눈을 돌린 이유다. 정 회장은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건설 기업은 조만간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965년 9월, 태국에서 낭보가 날

아왔다. 태국 파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한 것이다. 태국 정부가 실시한 이 입찰에는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16개국에서 29개 업체가 참여했다. 낙찰금액은 521억 달러. 당시 해외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 낮은 입찰가를 써내며 계약을 수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공사 수주는 국가적인 경사로 여겨졌다. 방송사는 현대건설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떠나는 날, 생중계를 했다.

현대건설이 태국에 가지고 갔던 국내 장비는 재래식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던 구식 장비였다. 그나마도 노후한 데다 장비 수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불도

저, 로더 등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지만 현장 기능공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고장 나는 일이 허다했다.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동식 롤러, 컴프레서, 믹서를 직접 만들어 썼고, 시멘트 싣는 차도 만들어 썼다. 초보적인 장비에 불과했지만 향후 건설 장비 제작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였다.

한국과 다른 기후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도 많았다. 비가 많은 탓에 모래와 자갈이 항상 젖어 있어 그대로 섞을 경우 수분의 양이 맞지 않아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다. 기능공들이 고심 끝에 자갈을 건조기에 넣어 말리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나타나 “비싼 기름으로 건조기를 돌릴 필요가 있느냐, 골재를 철판에 올려 구워 말리라”고 지시했다. 정 회장의 기지 덕분에 건조기를 이용할 때보다 생산능률이 2~3 배 높아졌다.

1966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1968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정 회장은 한 달 중 일주일은 태국에서 머물렀다. 그가 태국에 있는 동안 현장 직원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새벽 4시에 현장에 나와서 기계를 돌렸을 정도로 의욕이 강했다. 당시 태국 정부는 30개월에 공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지만, 현대건설은 정 사장의 독려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준공을 4개월이나 앞당겨 버렸다. 세계 건설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 공사로 약 300만 달러의 막대한 손해를 봤다. 비록 상당한 적자를 봤지만, 이 공사를 통해 세계 속의 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또한 이때의 시공 경험은 이후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일조했다.

현대건설은 1966년 1월 베트남 캄란만 준설공사를 따내 수주 행진을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산업항 건설 당시
울산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무게 550톤짜리 대형
철골구조물(재킷)이
바지선에 실려 건설현장으로
운반되고 있는 모습.



2,550마력짜리 준설선 한 척으로 호주 등 3 개국이 완공을 못 보고 지지부진하고 있던 공정을 떠맡아 예정 시한에 맞춰 완공했다. 1960년 대 후반에는 괌, 호주, 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등에서 매년 수 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고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액은 9억3,114만 달러였다. 입찰금을 제시하려 투찰실에 들어갔던 전 모 상무가 ‘아무리 생각해도 8억7,000만 달라는 너무 싸다’는 생각에 6,000만 달러를 더 얹어버린 것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경쟁사인 미국 브라운 앤드 루츠사가 9억444만 달러를 써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 브라운 앤드 루츠사의 입찰이 해양 유조선 정박시설 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무효 처리된 것. 현대건설은 ‘20세기 최대 역사(役事)’라 불리는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에서 해상 구조물 재킷(Jacket)을 울산에서부터 직접 수송했다. 10 층 빌딩 규모, 550톤에 달하는 재킷을 한계 오차 5cm 이내로 설치하는 데 성공하며 외국 기술자들을 놀라게 했다.

현대건설은 1980년대에는 싱가포르 마리나센터 건축공사 수주 등 동남아 시장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1982년 해외공사 누적수주액 100억 달러, 1988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중남미지역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수주 누계 1,000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를 돌파했다.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에서 시작된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이 48년 만에 낳은 결실이다.❶



막걸리 : 몸에 좋은 한국 대표 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자, 봄비가 후두둑 우산을 두드린다. 퇴근길을 재촉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곧장 귀가하기에는 웬지 아쉽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막걸리 한 잔 할래. 그거 좋지. 이런 풍경, 과연 우리네뿐일까? 사실 막걸리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가장 인기가 높은 나라는 일본,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에서도 막걸리에 엄지를 치켜 올리는 분위기다.

막걸리는 청주를 떠내지 않고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설로는 '방금 막 걸러낸 술'이라 해 막걸리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다른 술과는 달리 한 자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서민적인 술이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막걸리는 한반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술이다. 여러 문헌 속에서 막걸리는 '탁주(濁酒)'로 표현돼 왔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요례'라는 단어는, 탁하고 단 술을 뜻하는데, 막걸리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송나라 사신 서공(徐兢)이 고려를 방문한 후 집필한 '고려도경'에는 "서민들은 맛이 박하고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고 기록했는데, 사가(史家)들은 흐릴 탁자(濁器)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막걸리를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주로 대표되는 증류주가 고려 후기 때 원나라로부터 비로소 도입됐음을 떠올려보면, 막걸리 쪽이 한반도에서의 역사는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시작되면서 막걸리는 변곡점을 맞았다. 1909년 주세법의 제정공포, 1916년 주세령, 1934년 자가용 양조면허 폐지로 면면이 이어오던 전통술은 맥이 끊기거나 밀주의 대접을 받아야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막걸리는 허가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획일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막걸리 맛이 비슷비슷해진 배경이다.

▲ 올해 1월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판 1면에 막걸리 광고가 떴다. 광고에는 배우 송일국이 흰 한복을 입고 크게 웃으며 막걸리가 가득 담긴 잔을 들고 있다. 'MAKGEOLLI?'(막걸리)라는 제목 아래에는 영어로 '막걸리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며, 쌀로 만들어져 몸에도 좋고, 특히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이 난다. 가까운 코리아타운에서 한번 즐겨보세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1960년대 초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양곡관리법은 막걸리 제조에 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밀가루 80%, 옥수수 20%의 도입양곡을 섞어 빚었는데, 술 맛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 뒤 쌀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고 식량자급이 이뤄지자, 1971년 비로소 쌀 막걸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형 양조장에서 조차 빠른 막걸리 생산을 위해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바람에 옛 맛을 살린 막걸리는 나오지 않았다. 막걸리가 서야할 자리를 소주·맥주·양주 등이 차지하고 말았다.

막사(막걸리+사이다)처럼

다양한 메뉴 개발 가능

막걸리에 닥친 또 한 번의 변곡점은 2000년대 초다. 변질되기 쉬운 막걸리의 단점을 개선해 지역별 공급 제한이 사라져 전국적 유통이 시작됐다. 덕분에 막걸리 매니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사들이 앞 다퉈 막걸리를 재조명했고, 일반인들도 막걸리의 효용에 대해 널리 알게 되었다. 막걸리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시장규모도 커졌다.



일본을 넘어 중국, 유럽에서 인기몰이

최근 인기가 주춤해진 일본을 대신해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신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순당에서 지난해부터 수출하기 시작한 '아이스 유자 막걸리(氷柚 瑪克麗)'란 브랜드로 수출되고 있는데 '아이싱'이 중국어로 애정(愛精)을 뜻하는 '아이칭'과 발음이 비슷해 젊은 층에서는 애정주(愛精酒)로 불리며 한류 열풍과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포츠 음료' 개념의 마케팅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나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막걸리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로 꼽히는 벨기에의 몽드 셀렉션에서 스포츠 음료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다.❶

일본에서 인기를 끈 배경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던 이유도 있다. 20~30대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배우 장근석이 2011년 '산토리 서울 막걸리'의 모델로 등장하며 두 달 만에 판매량 700만 개를 기록, 한 때 품질 사태가 발생해 CF가 중단되기도 했다. 산토리 서울 막걸리는 서울 막걸리가 제조하고 일본 산토리가 유통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역사—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장 확대, 협업 증가로 3국 모두에 성공적으로 안착

20년 전 미국·캐나다·멕시코—북미 3국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수천 마일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미 3국내에서는 NAFTA 체결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로스 페로(Ross Perot) 미국 대통령 후보는 NA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일자리가 모두 멕시코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들은 NAFTA가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해 자국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호에서는 NAFTA가 체결된 동기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미국·캐나다·멕시코는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2월 19일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베른오바마 미국 대통령,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스티븐 허프 캐나다 총리(왼쪽부터).

NAFTA는 과거 1988년 체결된 미·캐나다 FTA(1989년 발효)에 1994년 멕시코를 추가·확대한 협정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미·캐나다 FTA에 비해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는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등 상품교역 관련 사항 외에도,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NAFTA는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NAFTA는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FTA로서 주목을 받았다. 북미 3국은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막대한 시너지 효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그 외에도 각국은 다름대로 NAFTA를 체결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NAFTA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 서 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 부진에 대응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생산의 특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멕시코는 경쟁요소를 자국 경제에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넓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당시 멕시코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3국 가운데 멕시코가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캐나다보다

이 시점에서 NAFTA 체결이후 20년 동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일 3국이 FTA 체결을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심화·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경제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는 당시 미국과 멕시코 양자간 FTA가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해 NAFTA 협상에 협류하였다. 또한 성장 일로에 있던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미국—멕시코 교역액 20년 간 6배로 확대

20년 전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던 NAFTA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NAFTA가 체결되기 바로 전 해인 1993년에 비해 2012년 506%나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역외국과의 교역이 같은 기간 동안 279%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와의 교역액은 미국의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한국, 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NAFTA 반대론자들이 NA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멕시코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주장했던 소위 '자이언트 서킹 사운드(giant sucking sound: 일자리가 남쪽으로 빨리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도로 로스 페로가 사용한 원색적 용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대신 항공 산업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역내 3국간 생산공급망(supply chains)이 심화·확대됐다.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의 구성 성분을 보면 약 40% 정도가 미국산 원료나 부품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의 성분을 보면 약 25%가 미국산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에 힘입어 거대한 '팩토리 노스 어메리카(Factory North America: 생산공장 북미)'가 창출되고 있다. 3국 가운데 캐나다의 1인당 GDP는 과거 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3국 가운데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은 멕시코였다. 수입 경쟁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힘

입어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였던 멕시코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멕시코가 이후 체결한 14건의 FTA는 NAFTA를 기본 템플릿으로 삼고 있다.¹⁾

한·중·일 FTA, NAFTA와 닮아 있어

현재 동북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로 상호 경제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서 NAFTA와 닮은 점이 있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단계가 앞선 국가 내에서는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자국 내 일자리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 시점에서 NAFTA 체결이후 20년 동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일 3국이 FTA 체결을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심화·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특화하게 되고 역내외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투자와 생산 증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고용 증가는 역내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역내 교역은 NAFTA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NAFTA 3국간 역내교역비중은 약 40~50%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비중인 20% 대를 크게 웃돈다. 과거 NA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장된 우려였다는 점이 드러났듯이,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대내외 협상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❷

1) NAFTA 체결 20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 (Jan 4th 2014)의 "NAFTA at 20: Deeper, better NAFTA" 기사 참조.

세계의 FTA-④중국의 FTA

짧은 시간 경제대국 된 것처럼, FTA에 가속도 붙어

중국은 2013년 연간 수출입 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교역국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나선 지 채 2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다. FTA 역시 2000년대 들어서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교역 증대와 함께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점진적·단계적인 '중국식' FTA를 추구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이후 대(對) 세계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1년 들어서야 WTO에 가입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위상은 교역 대국의 위상에 비해 뒤쳐진 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FTA 추진 과정에서도 '중국식'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체결한 FTA는 2003년

홍콩, 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다. 홍콩과 마카오는 서구식 민통치 이후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의 제도적 차이로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제법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제

제가 다른 두 지역에 적절하게 운용되어 왔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두 지역과의 특수한 관계가 WTO 규범과 상충하게 되었다.

WTO는 회원국 간 비차별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이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FTA는 중화경제권 및 소국 중심의 FTA를 체결해왔으나, 최근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 8위에 달하는 활발한 교역 국가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에 이은 제3위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중국의 이전 FTA 체결 국가와 상이하다.

따라서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홍콩, 마카오에 대해 여타 WTO 회원국과는 다른 경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충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 홍콩, 마카오와의 FTA인 CEPA 협정이다. WTO는 예외적으로 FTA에 대해 체결국 간 차별적 특혜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은 ASEAN, 칠레, 파akistan 등 소규모 국가와 FTA를 맺으며 점진적·단계적 FTA를 추진해 나갔다. 예를 들어 칠레, ASEAN과는 상품협정을 먼저 발효시킨 이후 서비스 협정 및 투자 협정을 발효시켰고, ASEAN 및 파akistan과의 FTA에서는 EHP¹⁾를 채택해 단계적인 개방으로 나아간 것이다. 중·ASEAN FTA의 경우 573개 품목에 대해 먼저 개방하고 차츰 관세 인하 품목의 비중을 늘려나갔다.

중국은 2010년 대만과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 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르는 중화경제권 FTA를 완성하며 중국식 FTA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중국(One-China)'을 표방하는 중국 대외정책과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정권이 합의를 이루며 체결에 성공한 ECFA는 경제적 목표에 집중

하는 FTA에 비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이는 완전한 경제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단계의 틀(framework)로 대만으로서는 중국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미 2013년에 EHP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80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중국·대만 간 투자보장협정 및 서비스 무역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지며 양 안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FTA 추진 변화의 바람 불어

중국의 FT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화경제권 및 소국 중심의 FTA를 체결해왔으나 최근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 8위에 달하는 활발한 교역 국가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에 이은 제3위 교역 상대국으로서는 한·중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무대로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RCEP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RCEP에 포함된 국가 중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이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는데다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6개국 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상이해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개방수준을 합의하는 데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방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들어 TPP 참여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❶

1) EHP(조기수확 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 :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개방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 우선 개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총 46개국을 상대로 한 9개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이며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수입국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증가하고 동시에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하위 협력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발급 요청이 늘고 있다. 이들 서류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산지관리 실무—④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직수출 업체 아니어도 FTA 활용 피해갈 수 없어

01 원산지(포괄)확인서

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완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될 때까지 소요된 원재료의 모든 유통과정, 거래관계에서 발급과 수취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동일한 원재료 또는 최종 완제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 거래별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발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와 '원산지확인서'

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법적인 책임이 있는 서류이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협력사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현재 발효된 전체 FTA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일상적으로 유통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아 상위업체가 하위 협력업체에게 요청하는 제품·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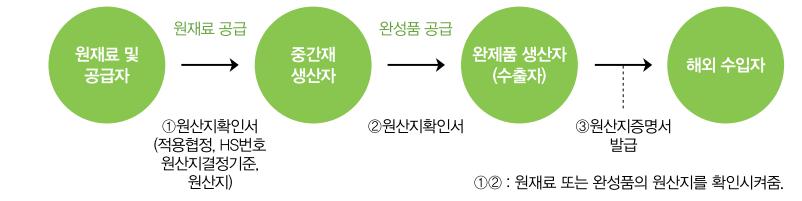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FTA 협정별 원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인 수출업체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은 그동안 FTA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반면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과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이유로 수출업체로부터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 등으로 발급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원산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 추가 비용 부담 등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있어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확인제도는 세관 또는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심사하고, 수출업체는 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활용함으로써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어주고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신뢰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흐름



0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더불어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해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원재료 공급업체)가 발급한다.

국내 공급하는 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공급업체는 원산지 미충족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해당 원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당해 원재료에 대하여 역외산으로 처리해 판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원재료 생산업체가 원산지 미충족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업체에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서류에 표시된 비원산지재료 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부가 가치로 인정받아 최종 원산지 판정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 생산 공정의 누적 등을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역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

개념	
원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용도	
국내거래(수출자-제조자 간, 제조자-제조자 간)되는 원재료(부분품) 또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증빙(Local C/O 역할)	
작성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완제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개념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입증하는 서류	
용도	
비원산지로 판정된 원재료의 생산비용을 누적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시 용이한 확인·반영을 위하여 사용	
작성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⑤애완용품

개·고양이용 껌·과자·영양제 모두 사료와 같은 HS 2309.10에 속해

국민소득 증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 및 애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애완동물 식품 및 용품 등 관련 제품시장이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애완용품 중 사료와 의류, 샴푸 등 몇 가지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자.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 못지않게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반영해 주듯이 애완동물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졌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동물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반려 동물을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다.

사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애완용품 시장은 이제 미용·건강 상품, 애견의류와 완구, 애견호텔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성장가능

성이 많아 애완용품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애완동물 사료

최근 애완동물 관련 여러 제품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애견용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애완동물 사료와 간식 등 먹을거리이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필수적인 애완동물 사료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이 분야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까지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애완동물 사료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업체가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완용품 수출업체 D사는 현재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애완용품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나 고양이의 사료는 보통 정육, 설육과 곡물, 기타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바로 먹기 쉽게 일정 모양으로 만들어 밀폐용기에 소매용 포장된 것으로 HS 2309.10호의 '개나 고양이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D사는 젤라틴, 소가죽 등의 생가죽 조각, 색소 등으로 가공된 기존 애완견용 껌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화가 잘되면서도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치석예방에 유익한 애완견용 껌을 생산하면서 수출을 확장시켰으며 미국으로의 첫 수출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D사의 제품은 현재 외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좋아 후속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성공

해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사의 애완견용 껌을 비롯한 애완견의 간식으로 사용되는 과자 역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 2309.10호에 분류한다.

이밖에 개나 고양이의 영양보충제도 동물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 2309.10호에 함께 분류된다.

HS 2309.1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지만 한·EU FTA의 경우 사료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육(2류), 어류(3류), 유제품(4류), 곡물(10류), 곡분(11류), 당류(17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협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 외에 열대어, 금붕어 등의 어류용 사료와 앵무새 등의 조류용 사료는 HS 2309.90호에 분류된다. HS 230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미 FTA 등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에서 일부 예외가 있으며, 한·아세안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RVC 40%)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HS 2309.10호의 기준과 동일하다.



애견용 샴푸와 의류 등 기타 애견용품

한편 애완용품에는 사료 이외에 애완동물의 집, 신발, 장난감, 치료보조제, 배변판드 등 굉장히 많은 상품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타용품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따르면 애견용 샴푸와 의류 등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앞서 D사는 애완견용 샴푸류도 판매하는데, 최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식물추출물, 계면활성제, 오일, 물, 향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애견용 샴푸는 HS 3307호에서 '파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에 견용의 샴푸를 예로 들면서 동물 화장용 제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HS 3307.90호에 분류된다.

합성섬유제로 직조된 애견 의류는 HS 4201호에 각종 동물용의 장착구를 분류하면서 '강아지용 코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견용 코트가 분류되는 HS 4201.00호에 분류된다. 참고로 HS 3307.90호와 HS 4201.0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고 있다.❶



개나 고양이의 사료는 HS 2309.10호의 '개나 고양이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애완견용 껌을 비롯한 애완견의 간식으로 사용되는 과자 역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 2309.10호에 분류한다. 이밖에 개나 고양이의 영양보충제도 동물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 2309.10호에 함께 분류된다.



사후검증 따라잡기-⑤정보제공요청서 대응Ⅲ

'14. CBP Officer Message' 내용을 별지로 질문하는 경우의 답변 방법

미국 세관의 검증 관련 정보요청서(CBP Form 28)
14번란이 'CBP Officer Message'이며, 본란에
요청하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우 별지에
요청 내역을 기재해 피검증자에게 발송한다.

- ①출고검사서**
- Factory Inspection record where the goods are produced
- ②생산지시서**
- Production order showing goods to be produced
- ③제조공정 및 생산기록부**
- Assembly or production records maintained on the factory floor by the production manager
- ④생산설비**
- List of number and types of machinery available for the production-Subcontracts
- ⑤외주공정 확인**
- If part or all of the production work is subcontracted, the subcontracted operations should be verified to prove that the goods were produced in Korea.
 - Records demonstrating that the raw materials were obtained by the by factory and available for production
 - Transfer documents and proof of payment-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OPA)
 - If a portion of the processing or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a second country, then proof of the production processes in the second country are required
- ⑥역외가공 여부**
- Transfer documents and proof of payment-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OPA)
- ⑦수출 관련 기록**
- Transfer papers, export/import papers-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e goods purported to be produced by the factory were the ones actually exported-A copy of Letter of Credit or proof of payment-Purchase Order's cancellation, for non-financial papers

지난호에서 제품이 역내에서 가공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생산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아보았다. 이를 자료는 '원재료 구매-생산 투입-제품 생산'에 이르는 원재료와 제품의 수불내역 등이 제조공정과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CBP 오피서(CBP Officer)의 메시지도 지난번과 유사하지만,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조공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협정국에서 물품이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 중 하나는, 생산자가 '제조공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생산되는 공정을 살펴보아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공정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공정(이상)을 수행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제조공정도는 각 업체의 사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검증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주요 공정 순서별로 기재하며, 각 단계에는 '공정 수행장소', '투입 원재료', '사용 설비' 및 '해당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원산지가 인정되는 제조단계의 경우 해당 특정 공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

명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공정이 수행되는 사진을 첨부하기도 한다.

● 제조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뒤, 고객에게 출고할 제품에 대하여 출고 전, 제품의 안정성이나 원결성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품명, 검사일자, 검사자, 생산공정번호, 고객명,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상 고객의 특별 검사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생산정보·제조공정내역과 함께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BOM(원재료명, 원재료의 HS Code, 원산지 및 단가정보 포함), 비용 내역(Cost data) 등을 함께 요청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료들과의 연관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출고검사서

Factory Inspection record where the goods are produced.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출고 전, 제품의 안정성이나 원결성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품명, 검사일자, 검사자, 생산공정번호, 고객명,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상 고객의 특별 검사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다.

②생산지시서

Production order showing goods to be produced.
'작업지시서'라고도 하며 '워크 오더(work order)'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제품의 일정 수량을 일정 시기까지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서식이다. 작업에 필요한 재료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③제조공정 및 생산기록부

Assembly or production records maintained on the factory floor by the production manager.

제품의 주요 공정이 기재된 제조공정 및 생산기록일지를 요구하고 있다. 작업 현장의 관리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생산기록일지는 보통 생산일, 제품코드, 제품명, 일정

생산량, 누계생산량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④생산설비

List of number and types of machinery available for the production-Subcontracts.

생산설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설비목록 및 보유현황, 주요 기능, 일일 생산 가능수량 등을 기재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진을 첨부하여도 좋다.

⑤외주공정 확인

If part or all of the production work is subcontracted, the subcontracted operations should be verified to prove that the goods were produced in Korea.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의 협력업체(외주제작)가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생산과 관련된 기록과 제조공정에 대한 증빙을 협력업체가 하여야 하며, 원청업체와의 거래 계약서(또는 별주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⑥역외가공 여부

-Transfer documents and proof of payment-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O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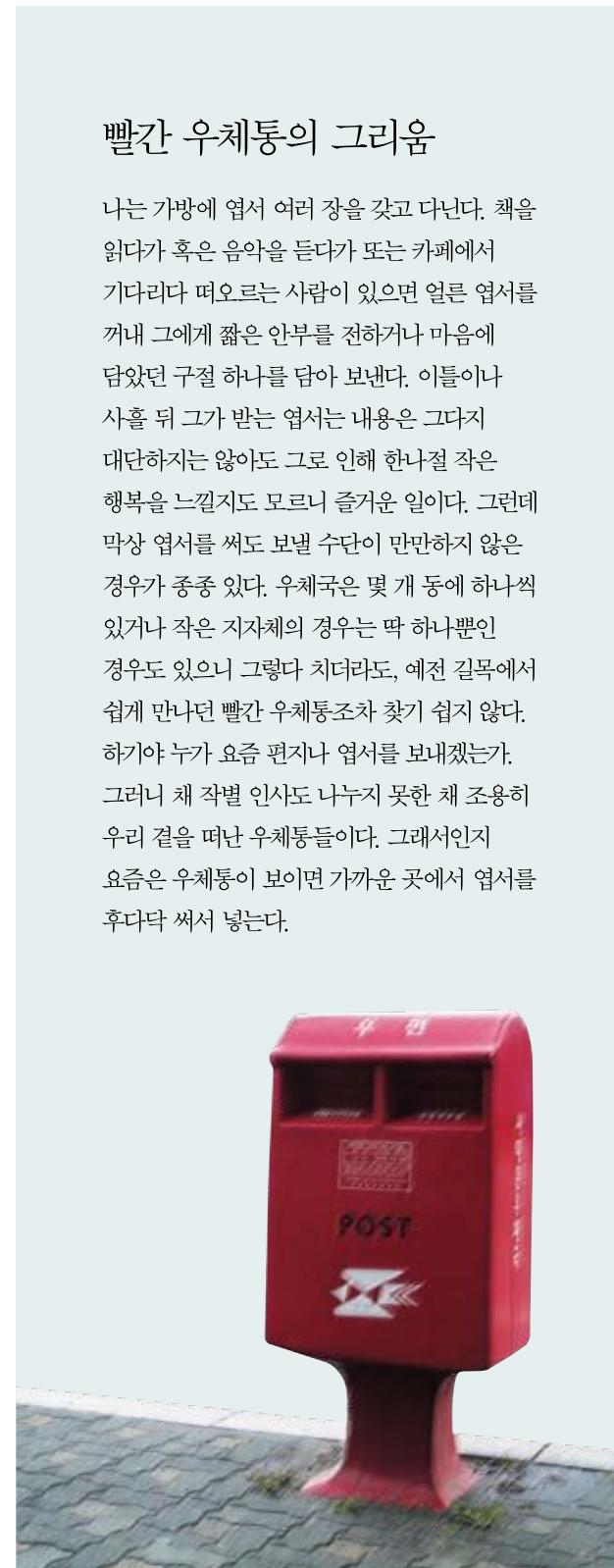
-If a portion of the processing or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a second country, then proof of the production processes in the second country are required.

한·미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국 역외가공을 통한 제품 생산은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협정 제14조에서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에는 개성공단 생산품도 한·미 FTA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⑦수출 관련 기록

Transfer papers, export/import papers-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e goods purported to be produced by the factory were the ones actually exported-A copy of Letter of Credit or proof of payment.

공장에서 출고되어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된 이력,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포워더 비용, 수출통관수수료, 신용장(L/C) 또는 기타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 등을 통하여 최종공정의 역내 수행여부, 직접운송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빨간 우체통의 그리움

나는 가방에 엽서 여러장을 갖고 다닌다. 책을 읽다가 혹은 음악을 듣다가 또는 카페에서 기다리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엽서를 꺼내 그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거나 마음에 담았던 구절 하나를 담아 보낸다. 이틀이나 사흘 뒤 그가 받는 엽서는 내용은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로 인해 한마디 작은 행복을 느낄지도 모르니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막상 엽서를 써도 보낼 수단이 만만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우체국은 몇 개 동네에 하나씩 있거나 작은 지자체의 경우는 딱 하나뿐인 경우도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 길목에서 쉽게 만난다던 빨간 우체통조차 찾기 쉽지 않다. 하기야 누가 요즘 편지나 엽서를 보내겠는가. 그러니 채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난 우체통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우체통이 보이면 가까운 곳에서 엽서를 후다닥 써서 넣는다.



Who is 김경집 작가?

삶을 세 등분으로 나눠 25년은 배우고, 25년은 가르치고, 25년은 글 쓰며 살기를 꿈꾸는 인문학자이자 작가이다. 서강대학교 영문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과 영성 과정을 알아 가르치다가 스물다섯 해를 체우고 학교를 떠났다. 글 쓰고 책 읽는 일로 나머지 삶을 꾸려가기로 작심하여 충청남도 해미에 작업실 수연재(樹然齋)를 마련하여 삶의 세 번째 단계를 누리고 있다. 거대답본보다는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런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손편지 받아줄 사람이 있어 행복해

충무(지금의 통영)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청마 유치환은 서울에 있는 운정 이영도에게 밤마다 편지를 썼단다. 그리고 출근길 우체통에 보내며 하루의 행복을 담뿍 누렸단다. 훗날 그 편지들을 모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올 만큼 두 사람은 애恸한 사랑을 편지로 교환했다. 청마의 경지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그가 우체통을 향해 걸어갔을 때의 행복은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편지를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처럼 이메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빠르고 쉽게 소통되는데 굳이 더디고 힘들게 손편지 쓸 일이 없으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조금 늦고 다소 공력이 들지 모르지만 편지는 이메일이나 SNS로는 느끼지 못하는 정취와 품격이 있다.

특히 지금의 중년들은 예전 그 경험을 누린 세대들 아닌가. 젊은이들이야 편지 써 본 일도 쓸 일도 없으니 그 맛을 모른다 쳐도 그걸 경험한 세대조차 그 다송한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년의 세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떠밀리며 힘들게 살았노라고, 살고 있다고 푸념할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 세대는 디지털의 속도와 아날로그의 온

기를 동시에 누린 유일한 세대이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그런데도 어설프게 훨씬 살면서 속도도 온기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얼치기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언젠가 어느 출판사의 가까운 편집자에게 짧은 문안 인사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란 시를 적어 보냈더니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중하게 답을 보내왔다. 그 엽서를 자기 수첩에 끼워 넣고 만나는 이들에게 자랑했더니 부러워하더란다. 어쩌다 우리가 그 작은 엽서에 감격해서 수첩에 넣고 다니며 동네방네나 손편지 받았노라고 자랑할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씁쓸하면서도 그이가 행복했다니 더불어 기뻤다.

사실 나로서는 그 엽서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서, 외려 그의 존재가 더 고맙다. 그냥 무심코 지날 일을 간단히 적어 보내면 그것을 받아 웃으며 읽어주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수취인불명으로 허공을 떠도는 빈 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전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 관계란 꼭 만나서 수다 떨고 코가 빠뚤어지게 술잔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전 선비들처럼 소박한 시구 한 구절 옮겨 적어 보내는 아취(雅趣)도 즐거운 일이다.

우체통이 빨간 건 심장을 물들이기 때문

우리의 일상적 삶, 특히 업무적 삶은 직선의 속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효용과 합리성은 샷길이나 구부러진 길 넉넉히 거닐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삶에 익숙해지면서 평상시의 삶조차 직선의 속도만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속도를 얻는 대신 풍경을 잊고 사는 삶은 부박하고 거칠다. 그러나 곡선의 부드러움이 허락하는 풍경은 여유와 성찰을 준다. 풍경은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속도와 풍경의 조화를 완숙하게 이루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다. 그건 거저 얻는 게 아니다. 그 맛을 경험하고 그 맛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선물이고 축복이다. 너무 오래 외면해서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조용히 앉아 편지를 쓰거나 업무 시간에 잠깐 쉬는 틈을 타 소박한 엽서를 써 보면 금세 그 잊었던 행복이 포르르 되살아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 받는 우편물이지만 대부분 고지서이

거나 쓸데없는 광고지들이라서 편지를 받을 때의 설렘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쉬워 할 게 아니다. 그런 편지 보내는 이 없다고 야속하게 여길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보내면 된다. 받는 사람은 그 때부터 행복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쓰는 시간, 우체통에 가는 길에서, 그리고 이제나 달았을까 저제나 도착할까 궁금해 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몇 곱절 더 행복하다.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며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논어-학이편' 첫 구절 둘째 문장에서 진짜 더 즐거운 사람은 멀리서 찾아온 벗을 맞는 이가 아니라 멀리서 그를 찾아가는 벗이다. 청탁이나 이해 관계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어서 떠난 길이다. 길 떠나기 전에 그가 보고 싶으니 이미 행복했을 것이고 길나선 뒤에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즐거움을 누리니 당연히 그가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라도 편지나 엽서를 써 보자.❶



"내려 갈 때 보았네,
올라 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도 적어서 보내면 어떤가. 그걸 들고 빨간 우체통까지 가는 즐거움은 덤이다. 삭막하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내가 작은 묘목 하나 심으면 된다. 그 나무가 자라 너른 길 되는 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 그것도 작은 혁명이다. 삶은, 행복은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의 뜻이다. 머뭇대다가 빨간 우체통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지켜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심장도 빨갛게 물들 것이다.





'7년의 밤' '28'의 정유정 작가

'시체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시체를 안겨주는 게 나의 소설

지난해 화제작 '28'로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정유정 작가.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한결같이 스토리·캐릭터·묘사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서 독자의 경험치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 작품세계와 달리 현실의 정유정 작가는 스스로 '구멍이 많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신작 '히말라야 환상방황'은 정유정 작가가 쓴, 소설이 아닌 첫 작품이다. 그간의 작품에서 보여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유머러스하고 편안한 느낌의 정유정을 만나게 된다. 난생 처음 외국을 나가겠다고 결심한 게 하필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이니, 등산 초보자인 두 여자(동행인 김혜나 작가)의 '죽을 고생'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고지대에서 무거웠던 몸과 달리,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써 내려갔다. 그래서인지 현실의 정 작가를 만나기 전 긴장감은 한결 덜했다. '함께하는 FTA' 독자 이득호 씨(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10학번)는 군 복무 때 '7년의 밤'을 읽으며 정 작가를 알게 됐다. 이 씨는 정 작가를 대면한 뒤 소설과는 전혀 다른 털털한 느낌이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득호 '히말라야 환상방황'을 읽고 작가님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

실 군대에서 처음 '7년의 밤'을 읽을 때는 이런 분이신줄 몰랐습니다.

정유정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그러나 전 사실 알고 보면 허당입니다. 구멍이 많은 사람이죠. 그간 너무 센 작품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면 이번 글로 스트레스를 푸시라고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썼습니다.

이득호 책을 낼 것을 염두에 두고 히말라야를 여행하신 건 아니신지요?

정유정 그럼 여행이 아니고 일이었겠죠. 저는 한 작품을 마치면 바로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28'을 끝내고 너무 공백이 길었어요. 다음 소설을 위한 예열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직업병처럼 어디를 가면 꼭 수첩에 고적 고적 하는 습관이 있었고, 책에도 나오듯이 트레킹을 마친 직후 갑자기 찾아온 허무감을 떨치려고 일기처럼 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득호 전작들도 마찬가지지만, 작가님 글은 허세가 느껴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정유정 나 자신을 꾸미지 않고 쓰려고 했어요. 심오한 뿐만 아니라 싶어하고, 남과 다른 것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면 독자들이 알아채지 않았을까요.

이득호 여성 작가들의 경우 스토리보다는 내면 세계나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가님 작품들은 스토리에 빠져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정 소설은 주요 독자층인 20~30대들을 영화·드라마에 빼겨가고 있어요. 이 독자들을 좀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돼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그것 없이는 문학이 발달하기 어렵죠. 강력한 스토리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소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체가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독자에게 시체를 안겨줘야 합니다. 영화와 달리 소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작가의 경우는 다

글 김민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Who is 정유정 작가?

전남 학평 출생.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 '내 심장을 쏴라'로 제5회 세계문학상을 받았다. 장편소설 '7년의 밤'과 '28'은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를 수 있겠죠.

이득호 '시체를 안겨준다'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전달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유정 좋은 예술은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기술 없는 예술은 조악하고, 예술 없는 기술은 허무하죠. 예술적인 부분은 타고 나야 하지만 기술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전 습작

때부터 묘사 연습을 오래 꾸준히 해 왔어요.

이를테면 바퀴벌레가 침대 밑에서 장롱 밑으로 기어가는 것을 A4용지 몇 장으로 묘사해 보는 거지요. 바퀴벌레가 기어갈 때 바깥에서 나는 소리, 햇볕 같은 것들을 말이죠. 시체를 안겨주려는 스킬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이득호 바퀴벌레 한 마리로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습작 때부터라

고 하셨는데, 작가님도 무명생활을 겪으며 진로를 고민하신 때가 있었나요?

정유정 사실 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벼랑으로 밀어 넣어요.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난 뒤 바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는 전직 간호사다). 공모전 11번을 떨어지는 과정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소설가 되기를 관두지 않았을까요. 성격이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예요. 신작을 쓸 때도 스스로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심장을 쏴라'에서 깊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음 작품인 '7년의 밤'의 과제로 삼았고, '28'에선 6개의 서브플롯을 1개의 메인플롯으로 엮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득호 다음 작품의 과제가 궁금해집니다.

정유정 이번엔 1인칭 사이코패스의 시점으로 인간 본성의 밑바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간의 작품에서 등장한 살인자가 타자의 시점이었다면, 이제 제 자신이 사이코패스의 입장이 되어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파헤치고 증폭 시켜야 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최선을 다 했다면 스스로 인정 할 수 있겠죠.

이득호 아찔하지만 새로운 작품이 기대가 되네요.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히말라야 환상방황'에서 마지막에 궁금증을 안긴 책나이프(남편이 사주고, 티벳 공항에서 압수된)에 대해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정유정 후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야단 많이 맞았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다'고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고 출국 전 서른 번은 얘기했거든요.

정유정 선배인 천명관 작가에게 드렸어요. ('해적판을) 실제로 볼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득호 네. 그럼 다음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유정 네,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청송전통옹기 이무남 옹기장

돈·명예도 옹기 만드는 재미만 못해

옹기가 좋다는 건 다
안다. 그런데 '좋은 옹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기계화·자동화·표준화가 대세인
시대에 느리고 투박할수록
좋은 것이 옹기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국내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전통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무남
옹기장(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5호)이 얘기하는 좋은 옹기란
무엇일까.

100년 된 가마터를 설명하는 이무남 옹기장.

이무남 옹기장(75)은 소맨십이 없는 사람이다. 흔히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만들 줄 모른다. 그의 작업장은 밖에서 보면 시골 농가의 농기구 창고 같다. 페인트칠도 생략한 시멘트벽에 힘석지붕만 달랑 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조명은 커버 없는 백열전구 하나뿐, 손바닥만한 빨간 라디오에서 단조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50년 전 풍경이라

고 해도 믿을 것이다.

"사진 찍으려는데 전통한복 같은 것은 없는 지요"라고 묻자 "그런 것 불편해서 안 한다"고 단박에 질라버린다. "소매가 펄렁펄렁해서 어 떨게 옹기를 만드나"라고 반문한다. 되는대로 주워입은 듯한 허름한 셔츠, 남색 추리닝, 검은 고무신 그리고 온 몸에 묻은 흙들 때문에 사진 속의 무형문화재는 영락없는 '노가다꾼'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차림새다. 하루 전 사진 찍는다고 예고했으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눈치다. 덕분에 사진기자가 그림을 만드느라 고생했다.

이 '노가다꾼'의 신기에 가까운 옹기 만들기를 눈앞에서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저그런 시골 촌로였을 것이다. 그런데, 40분 만에 만든 무릎 높이만 한 옹기는 기계로 찍어낸 듯 반듯하고 매끄러웠다.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무술수련에 뜻을 둔 청년이 고수를 찾아갔으나 걸모습에 실망해 돌아

서다 손가락 하나로 거구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격한 느낌이랄까. 옹기를 56년 동안 만들었으니 눈 감고도 만들 실력이다.

일반 가래떡 지름의 두 배만한 흙반죽을 무릎에 턱 얹어놓고 옹기 아랫단을 쑥쑥 쌓더니, 높이가 올라가자 이번엔 '흙가래떡'을 어깨에 올린 채 윗단을 쌓는다. 온 몸이 흙투성이 되는 이유다. 소걸음처럼 천천히 물레를 돌리며 벽체 안팎을 도구로 두드려 모양을 낸다. 옹기는 얇아지고 단단해진다. 이번엔 물레방아 돌아가듯 빠른 속도로 돌리며 벽체를 매끄럽게 다듬는다. 옹기 특유의 곡선이 살아난다. 물에 적신 형상을 대어 주둥이 모양을 잡고, 손으로 흙을 돌돌 말아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면 완성. 이후 건조실에서 한 달 동안 말리고, 잣물을 발라 일주일간 가마에서 구우면 청송전통옹기가 완성된다.

1960년, 21살 때 옹기공장 사들여

1940년생인 이무남 장인이 태어난 곳은 경북 상주다. 옹기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옹기 만드는 '굴'에서 놀았다. 당시는 작업장을 지을 돈조차 없어 굴을 파서 만들어 공장을 '굴'이라 불렀다. 어깨너머로 배운 눈치가 있어 19살 때 옹기를 배운지 6개월 만에 일자리를 얻을 정도로 기술이 늘었다. 스무 살인 1959년 청송으로 흘러들었다. 흙이 좋았던 청송에는 당시 13곳의 옹기 공장이 있었다. 지

금도 이 장인은 흙을 직접 퍼다 쓴다. 옹기에 쓰이는 흙은 모래질이 섞여야 공기가 통할 수 있고, 또 1200도의 가마열을 견디려면 끈기가 있는 흙이어야 하는데, 다섯 가지 성질이 고루 나오는 청송 오색흙이 딱 적당하다. 대량생산 옹기는 비교적 저온인 900도 가스열

에서 구우므로 고열에 견딜 필요가 없어 한두 가지 흙만으로 만들어진다. 그만큼 강도가 약하고 공기가 안 통한다. 가스불에선 24시간만 구우면 되지만, 청송옹기는 일주일 동안 가마에서 굽는다.

스무 살의 이 장인은 기술이 좋았고 자신감이 넘쳤다. 1960년, 전 재산 1500원으로 45만 원에 매물로 나온 옹기공장을 산 일화는 그가 젊은이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소재다. 당시 단골식당 주인에게 1500원을 줄 테니 동네 유지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대접해달라고 부탁했

다. 이 자리에서 공장을 매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허무맹랑한 제안이었지만, 신용과 손재주가 알려져 있었던지 양조장 주인이 화답해 계약금 1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엔 서로 자기돈 빌려가라로 할 정도로 공장이 잘 됐다. 그러던 중 기존 공장터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196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이 옹기자는 100년이 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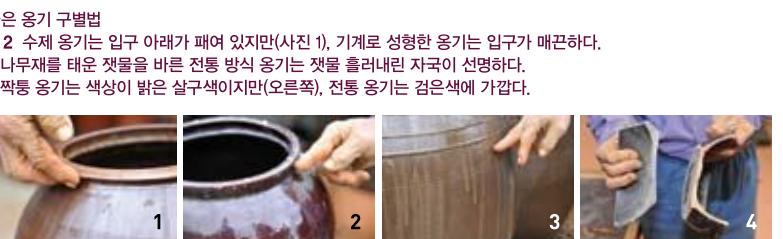
3대가 옹기 장인의 길 걸어

소맨십이 없는 이 장인은 돈과 명성이 주는 재미보다 옹기 만들기가 주는 재미가 더 크다고 한다. "돈은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어

떻게 쓰는 줄도 몰랐다. 무형문화재도 언론에 몇 번 소개되니까 경북도청이 와서 하라고 하길래 된 것이다." 아무도 없는 작업장에서 고독하게 옹기를 만들지만 이 장인에겐 그걸로 됐다. 만나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인의 돈을 노린 듯하다)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 취재를 오든 말든 개의치도 않는다.

다만 그가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짹퉁 옹기다. "먹는 것을 담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그릇은 말할 것도 없고, 공장에서 만드는 대량생산 옹기에도 쓴소리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흙을 가져다 기계로 성형하고 납이 섞인 화학약품을 유약으로 발라 가스불에 구운 옹기에 고추장 담아봐라. 얼마 안 돼 맛이 변해 버린다. 물을 담으면 흙 속에 스며든 가스(LPG)가 새 나와 하루만에 뿐에진다."

좋은 옹기 구별법을 물었다. 일단 손으로 만든 건가 아닌가를 보라고 했다. 방법은 쉽다. 주둥이 밑이 패여 있으면 손으로 만든 것이고, 기계로 성형한 것은 성형기가 빠져야 하므로 주둥이가 매끈하다. 둘째, 좋은 옹기는 잣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다. 나무태운 재와 약토(불에 녹는 흙)를 1대 1로 섞는데, 그 나뭇재가 남은 자국이다. 화학약품을 바른 것은 흐른 자국 없이 매끈하다. 셋째는 소리다. 전통옹기는 맑은 종소리가 나지만, 가스불 옹기는 둔탁한 소리다. 넷째는 깨어서 색을 보면 된다. 가스불 옹기는 밝은 살구색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구운 전통옹기는 검은색에 가깝다.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의결

한국의 10번째 FTA…중남미 주요 3개국 시장 확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모습.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이후 총

우 콜롬비아 측이 협정의 잠정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10번째 FTA가 되며, 우리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종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교역구조와 콜롬비아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상생형·자원협력형 FTA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 등 기술·자본 집약적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에 커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한다.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측은 99.9%, 콜롬비아측은 97.8%,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측은 96.1%, 콜롬비아측은 96.7%의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99.8%에 대해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는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 쇠고기, 양념채소류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계절관세·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 자유화와 함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을 개선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업계가 FTA 활용의 기반이 되는 원산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업종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가칭 FTA-Agri)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무료로 보급 중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Korea와 FTA-PASS는 제조업을 위주로 전(全) 산업에서 사용토록 표준적인 원산지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함에 따라 농수산식품 업종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 착수 보고회가 지난 4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시스템 개발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농수산식품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산업부는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농수산식품 평균 관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12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시스템 개발 착수 보고회 모습.

세율이 타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관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FTA 수출 활용률은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농어민 및 관련 업계는 FTA 원산지관리가 쉬워져 FTA 수출 활용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그동안 피해 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FTA 활용률이 저조한 농수산식품업계가 관세 인하에 따른 FTA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농수산식품 기업과 품목들이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농수산식품 업종에 전문화된 FTA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 농업전문가 파견 수요가 있는 지역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담 및 지원하는 등 우리 농어민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적용 위한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완료

지난해 7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의 당사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측은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

며, 2014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추가의정서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허를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 △기존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하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하는 것 등이다. 금번 국회비준 동의 완료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측은 조만간 EU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의정서는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후부터 발효·잠정 적용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제9차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 FTA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9차 이행위원회’가 4월 26~28일 인도네시아 솔로(Solo) 시티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이행위원회 산하에 있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제18차), 투자 작업반 회의(제1차)도 동시에 진행됐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 협정(2007년 6월), 서비스 협정(2009년 5월), 투자 협정(2009년 9월)이 순차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관련한 추진 방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활용률 제고 방안,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및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투자 유보안 작성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EU와의 협정에서는 인보이스(invoice: 상업송장)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에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및 혜택 범위, 유효기간,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세관	
혜택범위	전체협정, 전제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요건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절차 간소화 가능(인증 협정에만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 구축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활용하지 않는 협정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정 등 관리 능력을 소명하여야 하며, 사내에 FTA 업무매뉴얼 또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은 필수이며 외부 또는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둘 수 있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업체별:3년, 품목별:2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인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하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 FTA 10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튼실한 뿌리가 되고 있는 FTA의 믿음직스런 모습을 여러 기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4월호였습니다. FTA의 진정한 의의는 생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등 국가전체 이익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0년 전 FTA를 반대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던 분들이 지금 FTA가 가져온 성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세계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한층 강해진 수출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고 있다는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평가'를 자랑스럽게 읽었습니다.

이용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토목공사의 필수품인 토목섬유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지리수업을 하는 교사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학습지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FTA에 대해 언급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 만화를 이용한 FTA 설명 코너가 더 늘었으면 합니다. 만화지만 쉽게 FTA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논스톱으로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무역실무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FTA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고 방문 컨설팅까지 해주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점식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대기업도 포기한 수출길, 중소기업이 열었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노력의 결실을 맺는 부분이 참 멋지고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FTA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FTA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너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함정아 강원도 강릉시 교동

처음엔 삼성의 애물단지였던 반도체가 지금은 세계시장 점유율 10.6%로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력 수출 상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일화와 재미있는 수출 내용을 만화로도 게재하여 주세요,

양서정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면제도
공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도
모두 여러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제안하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는 정부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실 수 있는 국정참여 창구입니다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ing(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간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시후검증 대응 컨설팅